

광주 백화점들 '명품점 유치' 전쟁 불붙었다

광주신세계, 루이비통 매장 대대적 리뉴얼 롯데백화점, 프라다·페라가모 등 유치 추진 KTX 개통 따라 유통환경 변화 대응 필요

광주신세계가 '루이비통' 매장의 대대적인 리뉴얼을 단행하자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매장 확장을 통한 공간 마련을 제시하며 명품점 유치의 고삐를 당기는 등 지역 백화점들의 명품점 경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8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KTX 개통과 관련, 고객 유출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새롭게 전개되는 유통 지형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백화점들의 명품점 유치와 리뉴얼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광주신세계와의 명품점 경쟁에서 '더는 밀리지 않

과재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백화점 측은 명품점 유치를 최대한 서둘러, 문화센터 이전과 명품점 입점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새로 입점할 명품점 공간 확보를 위해 1층 일부 매장을 11층(옥상)을 개조한 새로운 공간으로 옮기고, 문화센터와 함께 입점시키는 방안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또, 루이비통 유치와 함께 광주에 매장이 없는 '프라다'를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프라다를 입점시킬 경우 신세계와는 차별화된 명품 고객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미우미우' '페라가모' 등의 입점도 타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광주신세계는 최근 명품 브랜드 경쟁의 정점에 있는 루이비통

매장의 대대적인 리뉴얼을 단행했다. 루이비통 광주신세계 매장은 전국 22곳 가운데 규모가 가장 작지만 매출은 수년째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알짜매장'으로 평가 받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지하 1층을 뚫는 파격적인 매장 리뉴얼이 완성되면 고객 접근성이 좋아지고 판매품목도 다양해져 매출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또 루이비통 외에 세계 3대 명품점으로 꼽히는 '샤넬'과 '에르메스' 매장의 입점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직까지는 터미널 시설인 백화점 1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성사하지 못했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명품 유치와 관련한 모든 상황이 첩보전을 방불케 하며 진행되고 있다. 광주신세계

광주시 우수 수공예품 '오핸즈' 지정

(광주공예품 공동 브랜드)

공예문화상품지정제 시행 국내외 산업전 참가 지원

광주지역에서 생산된 창의적인 수공예품이 광주공예품 공동 브랜드 '오핸즈(O'hands)'에 지정된다.

광주시는 공예문화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공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수 공예문화상품에 대해 '광주광역시 우수 공예문화상품 지정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수 공예문화상품은 광주에서 생산된 창의적인 생산품 중 지역적·전통적인 기술과 현대적 디자인이 결합된 상품성과 예술성이 뛰어나고 광주시의 문화를 간직한 상품이 선정된다.

선정된 상품에는 '광주시 지정 우수 공예문화상품' 지정서와 지정마크를 제작·교부하고, 상품 고급화를 위한 컨설팅과 브랜드 지정 상품 브로셔 제작, 광주 공예품 전시판매장 입점 지원, 국내외 산업전 참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광주디자인센터가 맡는다.

광주시는 상반기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운영 세칙

쇼핑 자투리 시간에 책 읽어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3층 '나누리 도서관' 개관

잠시 휴식 시간에 독서를, 쇼핑객으로 불려야 할 백화점에 책 읽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백화점 3층, 300여권의 책이 빼곡히 꽂혀있는 서가를 갖춘 60m² (약 18평) 크기 공간에는 독서를 하거나 책을 고르는 사람들이 북적거린다.

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이 쇼핑 도중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지난 4일 '나누리 도서관'을 개관했다. 도서관 이름 '나누리'는 지식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는 뜻으로 백화점 임직원

나머지 40%는 백화점 측에서 신간 도서를 구입해 채울 계획이다. 고객이 책을 기증하면 백화점 측에서 소정의 감사품도 증정한다. 일점 기간이 지난 책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기부해 소외계층에게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도서 기증 운동과 신간 도서 구입 등으로 다양한 책을 구비해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열린 도서관 문화를 정착시켜 고객들과의 또 다른 소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3층에 마련된 '나누리 도서관'을 찾은 고객들이 쇼핑 도중 자투리 시간에 비치된 책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청장년 귀농·귀어 1억까지 보증

농신보 전남보증센터

농어업인 보증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정책자금 대출이 규제개혁에 따라 대폭 확대된다.

농신보 전남지역보증센터(센터장 안순호)는 4월부터 청·장년 귀농·귀어창업 우대보증과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우대보증, 농어업종사 다문

35세 이하 청년 농어업인에게 신용 평가 없이 최고 1억까지, 농업관련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1억5000만원까지 보증해준다. 또 농어업종사 다문화가족 우대보증은 외국인과 혼인 후 2년이 경과하고 농어업에 종사한 지 3년이 경과한 다문화가족에게 간이신용평가를 통해 최고 1억원까지 보증해준다. 보증료율은 농어업관련 법인에 대해서는 0.2%포인트 일괄 인하했고 개인에 대해서도 신용등급별로 0.1~0.2%포인트 인하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채소·과일값 안정세

쇠고기·돼지고기는 강보합

4~5월 광주·전남지역 채소와 과일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성기)가 8일 발행한 광주·전남 농산물 소식지 '얼마요' 1407호에 따르면, 채소류는 각종 축제 등으로 나들이객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온상승 등 생육여건 호전으로 공급여력이 충분해 가격변동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상순까지 광내대비 기온상승이 예보되고 있어 산지출하가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보이나, 급식용 납품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각종 축제 등으로 인한 나들이객 수요 증가로 소비가 다소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

했다.

과일류 중 사과·배 등은 시제철을 맞아 제수용 소비 증가로 대과 위주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품목은 출하여건 호전으로 대체로 안정세를 형성하고 있다.

또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도축물량 감소와 닭고기와 수산물 대체소비 영향으로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품목은 매기부진으로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aT 관계자는 "4.5월 각종 축제와 기념일 등으로 인한 외식수요 증가로 소비가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기상여건이 양호할 것 등으로 인해 대부분 품목의 공급여력이 충분해, 안정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014 청소년 우리지역 명산 체험

은혜학교 · 신광중학교 무등산 숲길체험
 일시 | 2014년 4월 10일(목) 09:00~13:00
 장소 | 무등산 일원

무등산 숲 문화제
 일시 | 2014년 4월 10일(목) 13:00
 장소 | 충효동 양버들 특설무대

퓨전국악그룹 아이리아

주최 산림청, (주)광주일보사
 광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광주학교

주관 (사)광주학교 **문의** 062.385-1417